

더위 식히는 한여름밤의 예술축제



8일 순창향토회관 야외특설무대에서 출연진 100여 명 대규모 공연 예정

순창군이 7월 8일 순창군향토회관 앞 야외특설무대에서 100여명의 국악인과 예술인들이 출연하는 한여름밤의 예술축제를 연다고 밝혀 군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 열리는 한여름밤의 예술축제는 전라북도립국악원과 순창군이 공동 주최한다. 특히 이번 공연은 국내정상급 국악인과, 관현악단, 무용단, 창극단 이 함께 출연해 국악과 가요, 비보이, 창극 등이 결합된 수준 높은 예술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첫 무대는 국악관현악과 가요의 만남으

로 초등학교교과서에도 수록된 '소금장수'를 경쾌한 곳거리 장단으로 연주한다. 또 중장년층이 좋아하는 가요 영영, 동지, 남과함께를 차례로 엮어 국악기로 새롭게 표현한다.

두 번째 무대는 국악관현악과 B-boy의 만남 '멋으로 시는 세상' 편이다. 젊은 관객들을 대상으로 국악관현악의 웅장한 사운드와 B-boy의 자유분방함을 조화 시킨 역동적 무대를 선보인다.

군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단만창극 '뽕파네 순창골 이야기'도 준비돼 있다. '뽕파네 순창골 이야기'는 해학성과 즉

흥성이 매력적인 창극의 현장성을 살려 20여명의 연기자들이 소리와 춤 해학적인 대사로 관객들의 흥을 한껏 돋울 계획이다.

이외에도 창작무용 청성지화도 모처럼 관객들에게 수준 높은 무용 예술의 무대를 선사하게 된다. 이번 공연은 총 90분간 군민들의 눈을 뜨르게 만들어 줄 종합 예술 공연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황숙주 군수는 "최근 순창군이 문화부가 발표한 문화지수 우수지역 군단위 10위 안에 선정되는 기쁜 소식을 들었다"며 "앞으로도 이처럼 군민들이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공연 기회를 만들어서 군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 질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신진예술가 모집

국립민속국악원은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젊은 예술가를 발굴하고, 전통예술의 활성화와 대중화를 위한 무대를 마련하기 위해 '2016 젊은풍류'의 발표자(단체)를 15일까지 접수 받는다.

신청대상은 198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국악에 대한 열정과 실력을 갖춘 개인 및 단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모집부문은 전통공연예술 기악, 성악, 연희, 무용, 창작물 등으로 최종 5팀을 선발한다.

선정된 신진예술가는 10월 매주 토요일에 총 5회의 공연을 갖게 된다. 이와 함께 국립민속국악원 공연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홍보물 제작 및 소정의 공연사례비도 지급 받는다.

지원서류는 국립민속국악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하며, 우편(전북 남원시 양림길 54 국립민속국악원 장악과 젊은풍류 담당자)과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620-2325로 문의하면 된다. /정혜는 기자

임화영 명창, 판소리 전수관 연다

사재 출연 익산에... "지역 후진 양성 위해"

지역의 젊은 소리꾼을 양성하며 판소리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소월 임화영 명창(56)이 사재를 출연해 전북 익산에 판소리 전수관을 연다. 임화영 명창은 29일 "지역의 판소리 인재 양성을 위한 연습과 합숙을 위해 익산시 중앙동에 4층 규모의 전수관을 마련하고 7월3일 오후 5시에 조촐한 개관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이수자인 임 명창은 비교적 늦은 나이에 판소리에 입문했지만 타고난 목청과 풍부한 감정을 살린 소리로 주목을 끌었다.

오정숙, 성우향, 최란수 선생을 사사하며 소리를 익힌 임 명창은 2007년 남원춘향국악대전 판소리 명창부 대통령상을 받으며 비로소 두각을 나타냈다.

이후 임 명창은 익산에서 후진양성과 각종 대회의 심사위원으로 활약하면서 남원국악예술과와 원광대학교 국악과 초빙 교수로 활동하는



등 국악발전을 위한 활동에 매진해 오고 있다.

임화영 명창의 판소리 전수관은 익산시 문화예술의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연습생들의 교육과 합숙 공간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혜는 기자

무형유산원, '이수자녀-이심전심' 선보여

8월 27일까지 매주 토요일
차세대 전수자의 무대 주목

국립무형유산원은 7월 2일~8월 27일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본원 열수마루공연장에서 '2016 이수자녀-이심전심'을 선보인다.

이 공연은 국립무형유산원이 이수자의 전승 활성화와 역량 강화, 무형문화유산의 대중화 등을 위해 마련하는 것으로 국가 무형문화재 이수자로 선정된 이들은 각자의 기량을 절묘하게 내용을 재구성해 무대를 꾸민다.

7월 2일 첫 공연은 국가무형문화재 이리농악의 개인놀이와 설장구 장단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이주동심>으로 연다.

이어 9일에는 이 시대의 탈꾼들이 고성오광대, 하회탈신굿탈놀이 등 경상도 탈춤과 함께 개성 넘치는 춤을 보여주는 <젊은 탈꾼의 탈춤>이 마련된다. 28일 무대에는 다양한 유괴의 살풀이춤과 미디어퍼포먼스 살풀이춤 군무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무연>을, 30~31일에는 발에 탈을 쓴 발탈 광대들의 익살스러운 재간이 묻어나는 <피어날, 재담>을 펼쳐 보인다.

또한 8월 6일 공연에서는 대금, 피리 등으로 연주되는 풍류음악과 궁중무용 처용무 등이 어우러진 <풍류, 악기무용>을, 13일에는 현악기 중심의 줄풍류와 산조·시조·시나위 등 전통음악에 담긴 풍류의 멋을 느낄 수 있는 <하늬의 달, 천 개의



강>을, 20일에는 우리나라 민속무용을 대표하는 승무를 비롯하여 북청사자놀이·구름검무 등 전통춤으로 구성된 <리란자란 춤, 판>, 27일에는 풍류음악에 목소리·춤·영성·바안(러시아 악기) 등이 결합된 <미동, 손끝으로 그리다>를 각기 만나 볼 수 있다.

이 공연은 무료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이나 280-15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혜는 기자

버려라, 자외선 차단제 모리츠 '햇빛의 선물' 출간

"자외선과 암을 연관시키는 이론에 따르면 케냐, 티베트 혹은 스위스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피부암에 걸려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 고도가 높아 자외선 조사량이 많은 지역이나 적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암에 잘 걸리지 않는다. 특히 피부암에 잘 걸리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자외선이 암의 원인이 아니며, 심지어 암을 예방하기까지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암을 예방하는 자외선 중)



햇빛이 피부암, 실명을 유발하는 백내장, 그리고 피부 노화의 주범으로 여겨지는 것은 사람들의 오해일 뿐이라고 '햇빛의 선물'은 단언한다. 태양은 억울하다. 오랫동안 인류의 비난을 받아 왔다. 저자는 "태양을 비난한 것은 주로 자외선 차단제 업계나 의료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에 동조한 배심원이었다"고 주장한다. "햇빛에 노출되는 것이 치명적인 피부암의 원인이 된다고 일반 대중에게 시시때때로 경고하는 것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게 하거나 두려움을 안겨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들의 목적이 자외선 차단제를 비롯한 햇빛 차단 제품의 판매를 늘리려는 것인 너무나 분명하다. 급진적인 이익을 추구하려는 것이다."

자외선에 노출됐을 때 몸에서 비타민 D가 합성되는 메커니즘을 햇빛의 보호 효과로 특히 주목한다. 햇빛을 쬐었을 때 피부에서 만들어지는 비타민 D가 어떻게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며, 당뇨와 고혈압 등 다른 질병들과 함께 여러 가지 암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지를 알려준다. 통풍이나 류머티즘 관절염, 결핵, 빈혈, 습진, 건선, 피부염, 천식 등으로 고통을 겪는 남녀들이 햇빛을 쬐는 것으로 상당한 치료 효과를 얻는다고 알려져 있기도 하다.

지은이 안드레아스 모리츠는 아우르베다 의학과 흉재 진단법 등의 대체 의학 전문가로 베스트 셀러 작가다. /김민근 기자

이우환 "경찰이 4점만 위작이라 해라 회유" 파장

4~5명 경찰도 내보내고 변호사도 내보냈다. 한 명의 경찰이 살그머니(잘 들리지 않게) "4점만 위작이라고 하라"고 했다. 지난달 30일 오후 3시 조선후원에서 문화부기자와 만난 이우환 화백이 '폭탄 발언'을 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 화백은 2자로 위작 의혹 작품을 보기 위해 출석한 29일 작품을 보고난 후 "13점 모두 내 작품이 맞다"고 하자 한명의 경찰

이 "그러지 마시고, 요 4점은 가짜라 하고, 다른거는 진짜라고 하고 넘어가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 화백은 "아니, 내 작품인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거냐, 내 그림을 내 그림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냐"고 화를 냈다고 설명했다.

이 화백은 기자들이 재차 경찰이 정확하게 어떻게 말했냐고 묻자, 그 경찰이 "위작을 그린 사람이 그랬다고 하는데 왜 그

렇게 우기세요"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화백은 "4점은 위작자가 그랬다고 하니 분리시키자 라는 의미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우환 화백은 "어제 본 13점은 모두 내 작품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 화백은 "저만의 호흡, 리듬, 색채로 그린 작품으로서 작가인 제가 눈으로 확인한 바 틀림없는 저의 그림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호흡이나 리듬은 지문과 같다"면

서 "이것은 그 누구도 베낄 수 없다. 제3자는 아무리 잘해도 들쭉날쭉하고 어설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화백은 생존작가가 살아있는데 자신의 의견이 무시됐다며 재차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자신의 말을 안듣고, 특정한 감정위원과 국과수에 먼저 감정을 의뢰했다는 것은 이해 못할 행동"이라며 "국가 권력과 합세해 한 작가를 떡을 만들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날 초 경찰은 이화백 작품으로 거래되다 압수된 작품 13점을 모두 가짜로 판정했다. /김민근 기자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6년 7월 1일>

<p>▷쥐띠 48년생: 건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60년생: 사소한 일에 예민해질 수 있다. 72년생: 식욕이 감성이 들었으니 모임을 하거나 타인과 함께하면 즐거움이 배가 될 것이다. 84년생: 포기하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가 따를 것이다.</p>	<p>▷소띠 49년생: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 61년생: 하고자 하는 일을 합법적으로 처리하라. 73년생: 평소 익숙했던 것이라도 실수할 가능성이 높은 운. 85년생: 작은 일은 성취 가능하다.</p>	<p>▷호랑이띠 50년생: 다른 사람과의 의견충돌이 발생하는 운. 62년생: 사고수가 있으니 위험을 삼가는 것이 좋겠다. 74년생: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일찍 움직여라. 86년생: 신체적 컨디션이 좋지 않은 운.</p>	<p>▷토끼띠 51년생: 문서로 인한 금전지출은 좋다. 63년생: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일이 생긴다. 75년생: 금전적으로 이득이 따르는 운. 87년생: 하고자 하는일에 구슬수가 따른다.</p>
<p>▷용띠 52년생: 아랫사람에게 경사가 따르는 운이다. 64년생: 먼저 베풀고 진행하면 좋은 결실을 맺는다. 76년생: 어려움이 있어도 도와줄 사람이 나타나니 감정에 빠져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 88년생: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지 마라.</p>	<p>▷뱀띠 53년생: 타인과의 화해에 좋은 운이다. 65년생: 매사를 냉정하게 처리하라. 77년생: 다른사람의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89년생: 겉으로는 서로 웃고있으나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속에 있는 이야기는 삼가라.</p>	<p>▷말띠 54년생: 투자나 투기는 삼가는 것이 좋겠다. 66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은 운. 78년생: 어려운 일이 있다면 자신심을 버리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라. 90년생: 미뤄왔던 공부를 시작하기에 아주 좋은 운.</p>	<p>▷양띠 55년생: 금전적으로 기운이 좋은 운. 67년생: 사소한 일에 시비를 거는 사람이 생기니 마음을 다스리고 충돌하지 말아야 하겠다. 79년생: 무리한 투자는 금하고 때를 기다려라. 91년생: 손윗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쉽게 해결될 것이다.</p>
<p>▷원숭이띠 56년생: 손이라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일이 생긴다. 68년생: 물다리를 두들겨 보면서 건너야 할 때. 80년생: 좋은 일하고 뱀 맞는다. 92년생: 건강이 좋지 않은 운이니 원형은 삼가는 것이 좋겠다.</p>	<p>▷닭띠 57년생: 구슬수와 시비가 따르니 불필요한 언쟁은 피하라. 69년생: 먼저 손해를 보면 후에 이득을 얻게 된다. 81년생: 문서를 주고받기에 좋은 운이다. 93년생: 생각하지 못했던 실수를 범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p>	<p>▷개띠 46년생: 같은 화려하나 실속이 없다. 58년생: 지출이 심해지는 운이다. 70년생: 모든일을 혼자서 감내해야 하나 좋은 결실을 맺으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82년생: 이성과 함께 일을 도모하기에는 좋다.</p>	<p>▷돼지띠 47년생: 가족들의 불화가 생기는 때. 59년생: 받으려고 하지 말고 베풀면 좋은 일이 생긴다. 71년생: 여성은 밤늦게 다니면 흉한일이 발생한다. 83년생: 여성은 남성으로 인하여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p>